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TOGETHER<sup>+</sup>

## 함께

Vol.29 2019 SPRING

### COVER STORY

함께일하는재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내의 취약계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빈곤 가정 부모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서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부모의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트리사가 이번 호의 주인공입니다.

# CONTENTS

## 해외 지원사업 이야기

- 04 + 한 눈에 보는 2018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2018년 기부금 사용 현황
- 06 + 꿈을 담은 편지  
직조의 매력에 푹 빠진 트리샤(Trisha)와 아이들  
호앙(Hoang)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 08 + 현장 속으로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국내 지원사업 이야기

- 12 + 캠페인  
후원자들이 준 작은 관심, 청년들에게 가져온 큰 변화

## 희망나눔 이야기

- 16 + 기부자 인터뷰  
황금돼지처럼 풍요로운 나눔을 전해주는 후원자님의 이야기

## 알립니다

- 19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Opening

함께일하는재단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으로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찾아온 행복한 변화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발행 예정인 소식지 함께+ 30호부터는 수혜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담아 후원자님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감각적인 요소를 더해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소식지에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시기인 경칩입니다.  
후원자님의 지난겨울은 어떠셨는지요? 이제 지난겨울 추위로 움츠렸던 어깨를 펴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일하는재단에게 지난 2018년은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로 9년차를 맞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Smile Together Partnership)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도상국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3년의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파트너 기관이 스스로 지속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육성과정 등은  
소외계층이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소중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여전히 경제전망은 어둡고,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후원자님의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시절 국민들의 십시일반 참여로 실업위기를 극복했던 감동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자립지원을 위한 마음과 손길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재단은 더욱 견고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흐뭇한 변화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올림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 Vol.29 2019 SPRING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은행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2018년 기부금 사용 현황



함께일하는재단은 해외 빈곤 가정 부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가정 내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으로 빈곤 가정에 뿌린 희망의 씨앗이 더 널리 퍼지길 바라며, 작년 한 해 기부금 수입 내용과 지원 현황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총 기부금 수입 454,005,348원



기관명  
지역명  
사업내용



## 직조의 매력에 푹 빠진 트리샤(Trisha)와 아이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수놓았어요"



"저는 마윈이에요.  
전통패턴 위에 제 별명인  
WIN을 새겼어요."

전통 직조제품을 만드는 직조공의 자녀인 트리샤(Trisha), 리카(Lyka), 바네사(Vanessa), 마윈(Marwin)은 방학 동안 열린 우븐 워크샵에 참여하여 직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수를 위한 교육에 매일 참여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등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머릿 속에 있는 생각을 매트 위에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인 패턴을 정성스레 짜기도 하고, 하얀 지그재그 테두리와 함께 니모를 닮은 귀여운 물고기를 수놓았습니다. 10일 간의 워크샵을 통해 매트를 완성한 후 선생님께 달려가 자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베를 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척 어렵고 지겨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네 명의 아이들은 직조기술을 배움으로써 돈을 벌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께 보탬이 되려는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마다의 꿈도 가지고 있죠. 바네사와 트리샤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 하고, 리카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마윈은 멋진 경찰이 되길 꿈꿉니다. 네 명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사회적기업 우븐(Woven Crafts)은 저소득 여성 가정의 자립을 위해 수공예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여 전통 직조 교육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술을 아직 배우지 못한 직조공의 자녀로 대부분 월 평균 200달러 이내의 적은 수입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호앙(Hoang)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호앙은 띠헤를 통해 미술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살고 있는 호앙은 선생님의 모든 질문에 “예”라고만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인지라 수업시간에도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지만 하던 호앙은 수업을 통해 점차 변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큰 변화지만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꼬마예술가 호앙의 그림은 아주 귀엽고 색이 조화롭게 잘 섞여있습니다. 특히 색을 선택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예쁜 색으로 칠하기 위해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호앙을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수업을 통해 아이가 변화하고 있음을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호앙은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려고 하면 쉽게 화를 내면서 불편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호앙이 미술수업에서 처음 그림 그리는 것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 받았다고 합니다.

띠헤에서 진행되는 창의예술교육은 각기 다른 정체성과 흥미를 가진 장애 아동들이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앙 뿐만 아니라 다른 200여 명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띠헤(Tohe)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장애 아동과 빈곤 아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창의예술교육의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신적인 면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띠헤는 무상으로 미술교육을 받은 아동의 그림으로 패션 잡화를 생산하고 수익금으로 다시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2011년부터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난으로 고통 받는 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적절한 교육을 받아 빈곤의 굴레를 끊어내고, 존중받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 새롭게 선정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7기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변화를 관심으로 지켜봐주세요!

# 2019

##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커넥트 커피**  
Connect Coffee

카페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 고용



**리스퀴 디자인**  
Risque Designs

열악한 제화공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정무역 신발 제작



**반 푸엔**  
Ban Puean

장애인이 생산한  
수공예품 판매 및  
카페 운영



**키자미 테이블**  
Kijami Table

현지식 식당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청년  
취창업 지원



**부엌**  
BWOK

지역 내 청년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이커리 카페 운영



### 커넥트 커피



빈곤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커피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 이수 우수 학생  
취업 연계 및 장학금 지원

#### 커피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꿈꾸는, 커넥트 커피

커넥트 커피는 커피샵 운영을 통해 도시 빈민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케냐 청년층의 실업률은 26.2%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케냐의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빈곤층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빈곤은 대물림되어 아동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커넥트 커피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커피 전문가 양성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지직원 | 케네디(Kennedy)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바리스타, 바텐더, 웨이터 등 다양한 일을 했어요.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하면서 월 103달러를 벌었어요. 케냐의 최저임금이 평균 약 150달러인데 그보다 수익은 적었지만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일 했죠.

커넥트 커피에서 선임 바리스타로서 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 부모님, 형제자매들, 아내와 아들까지 총 10명의 식구와 함께 사는데, 커넥트 커피에서 일하며 번 수익으로 가게에 보탬이 되었고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 리스크 디자인

-  수해상습지 영세 제화공  
역량 강화 교육
-  저소득 제화공 자녀 대상  
영양식 및 장학금 지원

#### 제화도시에서 공정무역으로 상생하는, 리스크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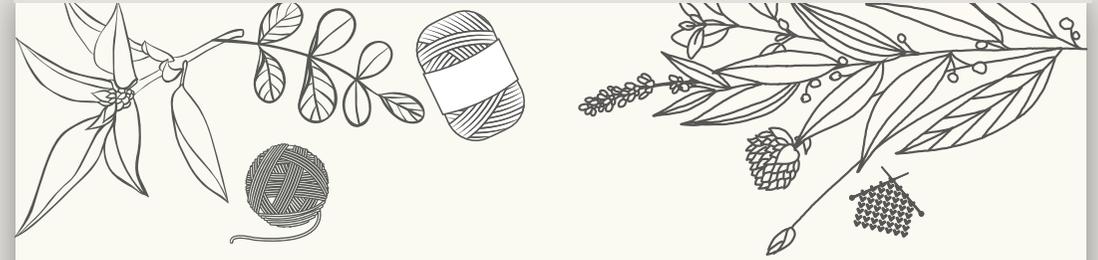
마리키나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제화도시로 성장했지만 최근 중국시장의 영향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많은 공장이 폐쇄하면서 제화공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졌습니다. 리스크 디자인은 지역 내 열악한 제화공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무역 신발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주민 고용과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화공들은 방 한 칸에서 3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살거나 친척까지 부양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의 교육이나 급식 등 교육비에 큰 부담을 갖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리스크 디자인은 다른 제화공장에 비해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제화공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직원 | 제스(Jess)

저는 12살 때부터 제화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공장에서 20년 간 근무하다 리스크 디자인에서 일한지는 5년 정도 됐는데 예전보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처우가 훨씬 좋아요. 다른 곳에는 없는 직원 공제제도가 있어 아플 때나 홍수가 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12명의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제가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다보니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작년 8월에는 큰 홍수가 났는데 아직도 집을 수리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수리하고 손주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 반 푸엔

-  성인장애인 대상  
수공예 기술 교육
-  장애청소년 및 저소득층 대상  
직업 훈련

#### 새롭게 펼쳐진 예술의 기회, 반 푸엔

반 푸엔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전통 도자기로 유명한 반 상하이 마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수공예 기술 교육과 고용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으로 장애인 비율이 높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취업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마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물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반 푸엔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고용해 기술을 교육시키고 수공예 제품과 시원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계획입니다.



현지직원 | 아이(Ai)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벽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4달이라는 적은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장애인 공동숙소에 살면서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가끔씩 컴퓨터 교육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많이 힘들었는데 반 푸엔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게 되서 기뻐요. 장애인들은 교육은 물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는데 반 푸엔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 후원자들이 준 ‘작은 관심’ 청년들에게 가져온 ‘큰 변화’

글·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 수혜자

조병천(가명) 군

고동민(가명) 군

사회적 편견에 맞서 다시 한 번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봉어빵 장사를 하며 운동하는 동생의 꿈을 응원하는 조병천(가명, 25) 군과 격투기 선수가 꿈인 고동민(가명, 22) 군의 사연입니다.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에 참여했던 봉어빵 형제는 캠페인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보았습니다.

“소년원에서 사회로 나온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었어요.”

조 군 소년원에서 사회로 나온 후 사회 적응이 가장 힘들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왔을 때 막상 할 일이 없었어요. 서비스 분야에 취업했지만 혼자 하는 일보다 협력해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 적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좋아요.

“봉어빵 장사는 실장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조 군 사회적응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실장님의 도움으로 봉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실장님은 5년 전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봉어빵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겨울부터 저희도 같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도와 운영하고 있고요.

봉어빵을 굽고있는 조병천 군



“봉어빵 장사로 새로운 꿈을 꾸는 동민이를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조 군 동민이와는 생활관에서 지내며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서로 겪었던 생활환경이 비슷해서 인연이 맺게 됐어요. 힘든 일도 함께 겪어왔고 그래서 봉어빵 장사를 통한 수익금으로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동민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당장은 노점밖에 운영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장을 여는 게 목표예요.”

조 군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같이 해보려고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봉어빵 장사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철 장사여서 계절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은 노점밖에 운영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장을 새로 여는 게 목표고, 지금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생활관에 붙은 세계선수권대회 현수막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을 통해 지원된 금액으로 봉어빵 기계와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조 군** 소년원에서 봉사를 해주시는 지인이 후원금을 주셔서 봉어빵 기계를 사게 됐죠. 봉어빵 장사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지금은 봉어빵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겨레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보태서 기계를 구입했어요.

**고 군** 생활관 안에 운동시설도 구입했고 전지훈련 비용도 캠페인 비용으로 갈 수 있어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2018 아시아 킥복싱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 은메달을 땀어요. 이번에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는데 프로 선수들을 만나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점점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캠페인을 통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고 군** 캠페인이 나가기 전에는 사회적 시선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연을 보고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감사했어요. 캠페인 이후에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끈기와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움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고 더 잘 되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 군** 봉어빵 장사를 하면서 주변의 시선들로 인해 고비도 있었어요. 하지만 캠페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저희와 같은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행사가 있으면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봉어빵 장사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생활관 친구들과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후원자 분들이 캠페인을 보고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마련된 봉어빵 기계와 운동시설



“후원자님들이 주신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김기현 생활지도실장

생활관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업과 운동을 병행해 진행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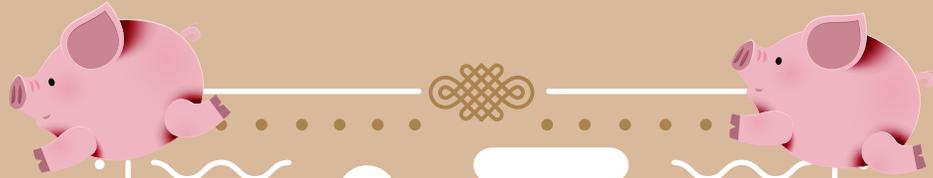


재단에서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에 대해 의뢰받았을 때 사회생활 초년생인 아이들이 혹여 상처받지는 않을까, 사회적 낙인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목표는 올해 안에 우리만의 가게를 차려 소년원 출신들을 고용해주고 사회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동민이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그 안에 카페를 운영해 함께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해 보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꾸는 꿈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눔 봉어빵 맛보러 오세요~!**

- 메뉴 : 나눔 봉어빵(달달한 슈크림, 오리지널 통팔)
- 특징 : 어른 손바닥만한 두툽한 사이즈, 속재료를 아끼지 않아 푸짐한 양,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고 달콤한 맛
- 가격 : 3마리에 2천원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 찾아오시는 곳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주민센터 옆
- 캠페인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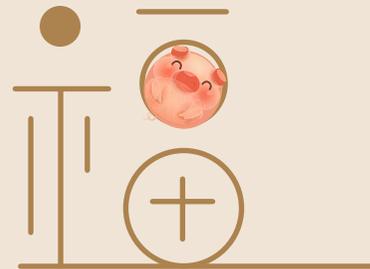
# 福

己亥年  
황금돼지처럼  
풍요로운  
나눔을 전해주는  
후원자님의 이야기

재단이 취약계층을 위해 발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 기해년 특집으로 황금돼지처럼 풍성한 나눔을 전해주시는 돼지띠 후원자님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오�히려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후원자님들의 훈훈한 나눔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 나눔은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돼지~



서나리 후원자님

“함께일하는재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어 뿌듯해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해주시니 착실하게 운영한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재단 소식을 보면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가득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눔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재단을 통해 마음 속 깊이 느꼈죠.”

서나리 후원자님은 2009년부터 해외 및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서나리 후원자님의 오랜 나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마음씨는 물론 환한 미소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서나리 후원자님은 2009년 방영된 SBS 희망TV를 통해서 함께일하는재단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 빈곤 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망설임 없이 나눔을 시작했다는 서나리 후원자님은 다양한 모금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평소에 잊고 살았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며 나눔을 실천하다보니, 재단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 결

에서 묵묵히 응원해 온 서나리 후원자님은 뉴스레터와 소식지를 통해 재단의 미래를 지켜보는 것이 소중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서나리 후원자님에게 나눔을 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외계층이 영양식이나 교육 등을 지원 받고 건강하게 지내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후원자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버팀목이 되어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나리 후원자님은 자신도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당연히 나누는 것 뿐이라며 앞으로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나리 후원자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멀리 퍼져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돼지~



한동우 후원자님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제가 일군 결과 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 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눔이 선순환 되어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하루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요?”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액수더라도 꾸준히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한동우 후원자님은 물질적인 나눔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진득한 성격인 이유도 있지만 본인이 나눔을 실천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오래도록 응원하겠다는 한동우 후원자님은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후원금 증액에도 흔쾌히 동참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한동우 후원자님처럼 재단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바랍니다.

**한동우 후원자님은 2018년부터 재단과 새롭게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후원을 시작하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후원금 증액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재단의 미션에 깊이 공감한다는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동우 후원자님은 비영리단체에서 15년 간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나눔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했던 후원자님은 함께일하는재단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선뜻 나눔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나눔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를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이사회 귀중

2019년 1월 31일

###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본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단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1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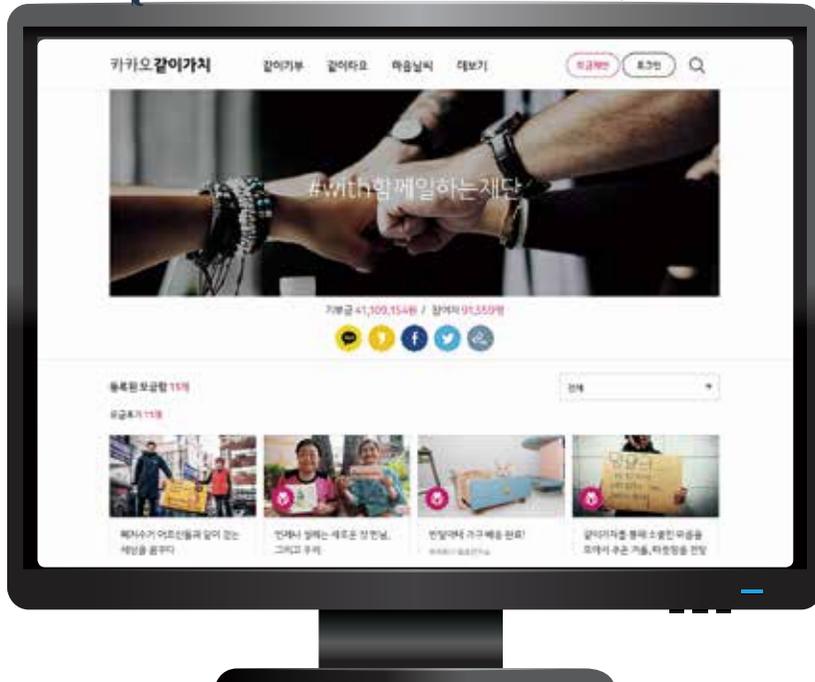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신영회계법인 대표이사 최 훈

지면의 제약 상 전문을 담지 못 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공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일하는재단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기업들을 응원합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이 2019년부터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 플랫폼의 사회적경제 영역 파트너 기관으로 카카오와 협력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모금함을 심사해서 조성된 기부금을 모금 사업에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후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직접 기부에 참여하거나 모금함 사연을 응원, 공유 또는 댓글만 달아도 카카오가 1건당 100원씩 자동으로 기부합니다. 이렇게 모금된 프로젝트 기부금은 결제 수수료 없이 전액 사회적기업에 전달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같이가치  
QR코드 바로가기